

# 아버지와 아들

신학박사 조 덕운

*[요한복음 14:23-24]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5:9-10]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일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글을 찾아보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 왕국의 부자 관계를 잘 배우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부자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지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신 구절은 30 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부자 관계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 말씀들로부터 하늘의 부자 관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늘 아버지와 부자 관계에 동참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들과 자녀들 간에도 그러한 부자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번 자신의 부자 관계를 설명하신 것이 아닐까요?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성부와 성자 간에 태초부터 아가페 사랑이 있어 왔다는 점입니다. 위에 수록한 요한 15:9 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특히 아버지들과 자녀들 간에 이러한 무조건 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 년반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과 협력하여 함께 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들께서는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일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사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종들이 기억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역의 원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심지어는 매일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으로서 지시 받아 이 말씀들을 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교육과 지시를 받아 이를 전하여야 하며 자신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 말씀해서는 아니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49]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태초 이전에 두분 사이에 이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회개하는 인간들의 죄들을 속죄할 속죄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20]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그 분은 성부의 인간 구원 계획에 동의하셨고, 스스로 종의 형체로 자신의 생명을 속죄양으로서 버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부자 간에는 거룩한 계획을 함께 세우시고, 아드님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한 동참과, 부자간에 상호 이해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부자 간에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부자 관계를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15, 17] [아버지]께서 나를 알 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7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심으로 포도나무인 자신을 포도원 지키이신 아버지의 돌보심에 온전히 맡기신 순종의 태도를 지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5:1-2]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다듬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일하실 동안과 마찬가지로 승천 후에도 자신의 몸과 같은 교회들을 관리하는 일에 성자와 성부 하나님 두분이 상의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좋은 포도나무 가지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분의 관리 행위에 순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10]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신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신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므로써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아버지들과 자녀들 간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수립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http://www.douglaschoministry.net)

후원에 감사합니다: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mailto:dwcho4771@gmail.com)

한국: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